1. **사전 조사(online . offline). 2021113490 이현서**

. 온라인에서의 나의 말하기 키워드

|  |  |  |  |
| --- | --- | --- | --- |
| 여자친구 | 가족(단톡방) | 대학동기(친한) | 대학동기(안 친한) |
| .1. 웅웅  .2. 이모티콘(귀여운)  .3. 애교(아잉.., 힝..)  .4. 칭찬(예쁘다, 아름답다)  .5. 궁금한 듯한 말(오늘 뭐해??, 뭐 했어??) | .1. ㅋ(단 답)  .2. 이모티콘(그냥 ok이런 거)  .3. 일상(오늘은 뭐했는지 등)  .4. 존댓말(동생 빼고는 거의 존댓말을 함) | .1. “ㅋㅋㅋ” ( 공감 )  .2. 뭐하냐 ( 궁금 )  .3. 게임(좋아하는 게임 이야기)  .4. 코딩(그냥 전문적인 코딩용어등을 많이 말함, ex: scaleup, EC2, Linux -> 주로 영어인 듯 | .1. 알겠습니다  .2. 확인했습니다  .3. 어쩐 일이시죠?  .4. 말 놓을까요??  .5. 비지니스 ( 비지니스 관계적 단어 ) |

1. **대화 분석**

|  |  |  |  |
| --- | --- | --- | --- |
| 여자친구 | 가족(단톡방) | 대학동기(친한) | 대학동기(안 친한) |
| .”웅웅” 이라는 단어와 같이 애교 섞인 짧은 단어들을 많이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대화보다 이모티콘과 이모지의 비율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여자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하려고 하는것 같음 | .”ㅋ”이 하나가 가장 주를 이루며 귀찮은 듯한 “ㅇ”와 같은 짧은 초성을 많이 활용함 또한 귀찮을 때는 이모티콘을 활용하면서 대답을 회피할 때도 있음  .아빠에게만 존댓말을하고 엄마한테는 존댓말을 하긴 하지만 안할 때도 있음을 확인함 | .친한 동기와는 “ㅋㅋㅋ”와 같은 편한 말이 주를 이루며 형이든 누나라도 반말과 장난끼 많은 말을 많이 사용함  .살짝 친구에게 서운하거나 화난 일이 있을 때는 존댓말(예사 높임??)을 사용하기도 함 -> | .안 친한 동기와는 비지니스적인 관계 이거나 아직 안 친한 거기 때문에 거의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와 같은 형식적인 말이 주를 이룸  .친해지고 싶다면 말을 놓자고 제안하면서 서서히 반말을 시도함 |

1. **나의 말하기의 장점 및 단점 ( 성찰 포함 )**

|  |  |
| --- | --- |
| 장점 | 단점 |
| .친구들과 사담을 할 경우 일단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에 맞춰서 대화를 시도함  . 서울말을 써서 친구들로 하여금 듣기 편하게 함  . 애초에 대화를 먼저 걸지 않아 필요 없는 발화를 안하거나 말을 적게 해 싸울 일을 만들지 않는다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상황에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함  .상대랑 싸웠을 경우 말이 더욱 차분해지면서 상대방과의 화해를 쉽게 유도할 수 있음 | .친구가 편하다 싶으면 말을 편하게 해서 어쩌다 말 실수를 함  .갑자기 너무 신나면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생긴다 ( 술을 마시고 말하는 경우 )  .상대방 하고 싸웠을 경우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내가 왜 잘못했지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킴 |
| 나의 말하기 성찰 | |
| 2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대화를 했고 이에 대한 잘했다고 생각 한적은 있었어도 이를 나쁘다고 생각해 바꿔보려고 노력해 본적은 없었다. 말하기의 장점5가지 단점3가지를 적어보면서 중고등학교때의 친구들과의 말하기를 돌아볼 수 있었다. 만약에 그랬던 상황에 다르게 말하고 상대방을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땠을지 생각해보았다. 그랬더니 앞으로의 말하기 습관을 어떻게 길들여 나가야 할지 방향이 쉽게 그려져 나갔다. 앞으로는 아무리 화나더라도 내가 먼저 사과하기, 발표를 많이 해 봄으로서 말을 더듬는 것을 고쳐 보기 등과 같은 사소한 목표를 새울 수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말하기 방법을 고쳐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고 나아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나의 발화 의도가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 말하기 방법을 터득 해야겠다고 느꼈다. | |